

# ‘정읍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조선시대 고유 농법·문화 간직  
3년간 14억 지원 보전·관리

정읍 ‘지황 농업’이 역사·생태적 가치를 국가로 부터 공인받았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황 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시도는 2024년 시작했다. 시는 지황 재배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생물 다양성 등 당시 미흡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진행했다. 또 주민 목소리를 지속 수렴하며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3개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후 농업유산전문위원회의 깊이 있는 조인과 검토에 이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정읍을 최종 선정지로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정읍시 칠보에서 생산되는 숙지황과 쌍황차. <정읍시 제공>

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벼짚을 활용한 종자(종근) 소독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 농법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증구포’를 계승한 숙지황 제조 등 정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9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20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읍만의 고유한 농업 기술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숙지황·쌍화차 산업이 재배 농가뿐 아니라 가공업체와 찻집 등 지역 공동체의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향후 3년간 약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농업 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관련 자원 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황 농업의 가치와 전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는 지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우수기관’ 비대면 건강관리 성과

고창군의 모바일 보건소 운영 시스템이 올 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고창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 성과대회’에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상위 36개 자치단체로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건강관리’ 공모사업에 대상에 선정된 군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허약·만성질환자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대상자 등록부터 건강측정 데이터 수집, 서비스 이력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동일 인력 대비 관리 대상자까지 크게 높였다. 실제로 등록 대상자는 2024년 169명에서 2025년 198명으로 17.2% 증가했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가 ‘2025년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ICT를 활용한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시, 옛 토지대장 한글화 DB 완료

업무처리 속도·정확성 ↑

남원시가 한자와 일본어로 작성돼 판독이 어려웠던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추진·완료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

장에 대해 토지이동 연혁과 소유자 변동 사항을 한글로 정비하고 전자화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와 토지 관련 소송, 각종 지적민원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구 토지대장은 한자 및 일본어 위주로 기록돼 있어 검색과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조상 땅 찾기나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 관리 등 시

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에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사업이 완료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한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던 MZ세대 공무원들도 구 토지대장을 직관적으로 판독·활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 크게 오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마켓’ 올 매출액 22억 돌파

절임배추 단일 품목 5000만원…SNS 등 마케팅 효과

고창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고창마켓’이 혁신적인 플랫폼 전략과 집배송 시스템을 통해 연 매출 22억원 돌파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마켓은 최근 김장 시즌을 맞아 판매된 절임배추 단일 품목의 판매액이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19일 기준 연 총매출액 22억원을 달성했다.  
고창마켓의 성장은 집배송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SNS 채널(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용한 마케팅 극대화가 꼽히고 있다.  
또 최근 홈페이지 리뉴얼과 전용 앱(App) 개발을 완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농산물 쇼핑몰의 특성상 70대 이상의 이용자 등에게도 쉽

고 편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배려가 돋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 알림, 특별 할인 정보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냉장과 냉동 품목까지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 연령별·지역별 구매패턴 등 확보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매출 증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앞으로도 고창군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 생활체육 거점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장애·비장애인 통합형 체육관…가상현실 스포츠실 등



지난 23일 열린 남원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에서 최경식 시장과 김영태 시의장,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 등 참석자들이 개관 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거점 ‘반다비체육센터’이 문을 열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공간이다.  
시는 지난 2023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 총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육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개관한 체육센터는 1층에 배드민턴과 탁구 등을 즐길 수 있는 825㎡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 갖춰졌고 2층에는 쇼다운실, 시각탁구실, 당구장, 헬스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 장애인을 위한 체육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여기에 175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 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기업애로 해소’ 전북도 우수사례

제3일반산단 입주기업 ‘주차난 해결’ 등 호평

정읍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극행정으로 전북자치도로부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최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경진대회는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로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 해결’ 사례를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하림을 비롯한 산단 입주기업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에 시는 법적 제약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단지 내 완충녹지 유휴부지에 주목했다. 시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준수하면서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심사에 참여한 전북자치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정읍시의 주차장 조성사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수범 사례”라며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